

도전으로 혁신을!
혁신으로 미래를!



2025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 성대히 열렸다.

도전으로 혁신을!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새해가 될 것

MONTHLY KOFA

코파의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5
2025/12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2025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 성대히 열려 도전으로 혁신을!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새해가 될 것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는 지난 14일 2025년 제 15회 범 한국신발인의 날 행사를 땅그랑소재 모던랜드에서 성대히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를 비롯해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 신기업 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 송창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명예회장, 김종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강현 KO-CHAM 회장, 박성대 땅그랑 반튼한인 회장, 한준석 찌까랑한인 회장, 김태화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장, 장윤하 KOSA 회장, 김화룡 KOGA 회장,

서준형 월드옥타 인니지부회장과 한국신발협의회 회원사 및 임직원 약 500여명이 참석해 2025년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위한 힘찬 도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윤회장은 올해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문제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업계는 굳건히 버티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다고 했으며 특히 우리 KOFA 회원사 여러분께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북히 현장



▲송창근 KOFA 명예회장



▲이종윤 KOFA 회장



▲강원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총영사

국 영사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가 한인동포의 베풀목이 되주어 감사하다고 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단합되고 성실히의 가운데에는 신발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세계 신발업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는 한 해였고 그 혁신을 비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상호관세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

세대 리더들이 각 회사마다 희망적인 경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차세대 경영자의 선진적인 활약으로 이제 신발공장에서 신발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모처럼 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 모두가 한자리에 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과거 땅그랑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던 신발기업이 이제 중부자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각자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치고 상호 상생하자는 분위기와 목소리를 높였던 행사였다.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루마인다, 다문화 가정, 헤븐스, 무지개 공부방, 굿네이버스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위기상황에 함께하는 봉사를 해왔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지만 가장 탄탄하고 성숙한 직능단체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 튼튼한 베풀목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우리 한국 신발기업이 더 나은 비전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무지개 공부방 후원



▲헤븐스 후원



▲굿 네이버스 후원



▲루마인다 후원



▲다문화 가정 후원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



▲야시에를리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장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2025년 11월 21일로 예정되었던 2026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발표를 공식 연기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헌법 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경제적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될 새로운 공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현재 판결에 따른 전면 개편… “전국 단일 인상률 폐지”

야시에를리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의 제 168호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2026년 주단위 최저임금(Ubah Minimum Provinsi, UMP)을 포함한 모든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 적정 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핵심 변수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2021년 제36호 대통령령(Peraturan Pemerintah, PP) 기반의 산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국 일률 6.5% 인상이 적용되었던 2025년 UMP 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인상률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새롭게 마련될 임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

노동자 생산성

근로자 적정 생계비(KHL)

각 주·군·시 단위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의 권한

야시에를리 장관은 “적정 생계비가 얼마인지 추계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이를 공식화하고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

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지역 자율성 대폭 강화… ‘알파 인덱스’ 조정 및 중앙정부 불개입 원칙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노동관계국장 인다 앙고로 푸트

리는 “내년부터는 각 주·군·시

시 임금위원회가 자체 연구를 통해 UMP 인상 권고안을 마련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최종 결정 및 공표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이 과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변화는 ‘알파(alpha) 인덱스’의 조정이다. 기존 산정 공식에서 근로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나타내는 알파 지수는 0.10에서 0.30 사이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별 재량권이 커진다.

인다 국장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더 큰 폭의 UMP 인상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별 경제 격차를 임금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 2021년 제36호 대통령령이 규정했던 ‘매년

11월 21일’이라는 UMP 발표

시한에도 더 이상 얹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준비 중인 규정은 노동부령(Permenaker)이 아닌 대통령령(PP) 형태로 추진되므로, 기존 법령의 시한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계, “환영하지만… 예측 가능성 확보가 투자 유치의 핵심”

매년 연말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과 정책 변화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 섞인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Apindo)는 이번 조치가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임금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pindo의 밤 아잠 노동담당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임금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투자의 생명은 확

실성인데, 매년 깜짝 발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는 통제할 수 없다”면서, “불안정한 임금 제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향후 임금 결정 체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만 기업들이 장기적인 고용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는 곧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야시에를리 장관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통령령 조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프라보워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인포스트]

WhatsApp 계정 통한 피싱 시도 증가… 대사관, 동포사회에 주의 당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최근 해킹된 WhatsApp(WA) 계정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저녁에 갔겠다”는 송금 요청 메시지 확산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해커가 탈취한 WA 계정을 이용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메시지는 주로 인도네시아 어로 전송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된다.

“Selamat siang(sore), Bisa minta tolong punya saldo 15jt di rekening gak pinjam dulu nanti malam jam 7 saya balik in”

이 문장은 15 juta 루피아를 잠시 빌려달라며, 저녁 7시에 갔겠다는 내용이다. 대사관은 “지인의 계정에서 이 같은 송금 요청이 오더라도 반드시 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식 초대 파일·전자 벌금 통지로 위장

또 다른 유형은 결혼 안내(Undangan Pernikahan)

또는 **전자 벌금 통지(Surat E-Tilang)**로 위장한 문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UNDANGAN PERNIKAHAN.PDF 117MB · APK SURAT E-tilang elektronik 4.7MB · APK 이들 APK 파일은 악성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열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한다.

피해 의심 시 즉시 확인·차단해야

대사관은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발신자 이름으로 저장된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

이 예상될 때는 아래 기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다.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62-21-2967-2580

△대사관 당직전화(24시간): +62-811-852-446

△외교부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대사관은 “WA 계정을 노린 피싱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지속적인 주의를 요청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w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APT ALJUM GREEN NUSA

IMF, 여전히 어려운 세계 경제 속 인도네시아는 ‘희망적’



▲자카르타 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인도네시아가 외부 요인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IMF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적으로 “유망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IMF 마리아 곤잘레스 소장은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부정적인 충격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에 5%, 내년에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곤잘레스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주요 외부 리스크로 무역 긴장, 장기화된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을 꼽았다.

곤잘레스는 국내 측면에서는 충분히 견고한 보호장치 없이 대규모 정책 변화가 시행될 경우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승 위험(Upside risks)에는 예상보다 빠른 무역 확대를 포함한 고감한 구조 개혁과 무역 파트너들의 성장세 강화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는 GDP의 2.8%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정부가 최근 전망한 2.78%와 일치하며 GDP의 3%로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적자는 GDP의 1.56%에 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유동 자금과 재무장관은 지난 14

일 일부 정부 기관이 올해 할당된 전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자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보수적인 성장과 수익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GDP의 2.9%로 적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정부 예산 계획은 GDP의 2.68%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는 “당국의 예산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신중하게 관리하면 경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입할 재정 여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정 위험을 “잘 억제” 하려면 “강력한 안전장치와 준재정 운영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함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곤잘레스는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세수 확보, 양질의 자출 및 지출 효율성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곤잘레스는 지지적인 거시 정책 조합과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통해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고소득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주목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규제 완화, 무역 장벽 감소, 글로벌 통합 강화 등 야심찬 수평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화하고, 강력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고, 역동적인 민간 부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원(OJK),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대표들과 논의 한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5% 성장의 이면엔 ‘안정 속 불균형’ ”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3분기 5.04% 성장률을 기록하며 겉보기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영과 사회 프로그램, 국가전략사업이 성장을 떠받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카르타포스트 11월 15일자에 따르면, 이 같은 성장률은 표면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 경제의 체력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가계 소비의 흐름이다. 공식 통계에서는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기 상황은 다르게 전해진다. 물가 상승, 임금 정체, 중산층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체감 경제는 여

전히 부담이 크다. 제조업에서 해고 증가와 비공식 노동의 확대도 소비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주도의 성장 모델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 공공주택 사업, 인프라 건설 등은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포스트 11월 14일자에서 이러한 방식의 성장은 민간투자 부진과 재정 부담 확대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장률은 유지되지만 고용의 질과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세계와의 연결성을 잃어가고 있

다는 점이다. 11월 14일자 자카르타포스트 분석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비중은 GDP의 19%에 불과해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주변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자본재 수입 감소는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설비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제조업 경쟁력은 전자·기계·섬유 등 주요 산업에서 약화되고 있다.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에도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상반된 움직임이 공존한다. 대외적으로는 캐나다·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BRICS 기업,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등 개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영기업 중심의 자산 통합, 현지 콘텐츠 요건, 광물 수출 제한 정책 등이 강화되며 내향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과 통제의 병존’은 시장에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노동시장 문제는 더욱 분명하다.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플랫폼·단기 노동 증가가 이어지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향후

더 높은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개방성’ 중심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간소화, 기술·자본 유입 확대, 법·시법 체계 개선, 반부패 개혁, 교육·보건 투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표면의 안정’과 ‘내부의 불균형’이라는 상반된 신호 속에 놓여 있다. 성장률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안정적인 성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구조적 개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작은 손길, 큰 화합!

제16회 땅그랑반튼한인회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열려

지난 7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박성대)는 땅그랑 소재 임페리얼 CC에서 제 16회 땅그랑반튼한인회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대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현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이강현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 협의회 송창근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김태화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 이종윤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의회 김화룡회장, 재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의회 장윤하회장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초대 이세호회장, 2대 하연수회장, 3대 오세명회장, 4대, 5대 채만용회장 외 많은内外빈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행사는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한인회 6기들어 처음 열린 송년의 밤 행사로 회장단 및 새 집행부에서 행사의 완성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쓴 행사였다.

박성대 땅그랑반튼 한인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으며 한인동포 모두 한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은감사를 표하며 더욱 튼튼한 한인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이번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와 깊은 존경과 격려를 표한다고 했으며 땅그랑지역은 전통적으로 신발 제조업으로 우리 한인동포가 뿌리 내린 지역으로 한인회의 다문화 취약계층 아이들과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성숙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한분 한분의



열정과 땀방울이 모여 더욱 빛나고 있다고 했으며 대사관도 함께 하겠다며 땅그랑반튼한인동포의 열정에 존경과 사랑을 표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회장은 이번 한인의 밤 행사에 진심으로 감사표했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 할 가장 가까운곳에서 필 요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 든든하다고 했으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위기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땅그랑반튼한인회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창근 명예회장은 작은 손길 큰 화합의 슬로건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으며 처음 작게 시작한 땅그랑반튼한인회가 초대 이세호회장을 시작으로 하연수, 오세명, 채만용, 박성대회장으로 오면서 너무 탄탄하고 선진화된 한인회로 성장함에 감동이라고 했다. 또한 15년 전 창립 당시 양영현회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인회가 있다고 했다.

제 16회 땅그랑반튼한인회 골프대회 및 연말송년회는 초대가수 신나라씨의 멋진무대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무지개공부방 아이들의 행사와 꿈나무학교의 사물놀이로 한인동포의 흥을 한껏 돋구었다.

땅그랑반튼 한인회는 전통적으로

한인동포의 권익과 위기에 항상 앞장서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보여준 한인동포를 위한 마스크 나누어쓰기, 백신접종을 위한 헌신과 더불어 지역 현지 주민과의 소통, 수낫딴 미술등 수 많은 봉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번 한인의 밤 행사에도 더 많은

한인 동포를 모시고자 했으나 장소의 협소함과 안전의 문제로 부족함에 다소 아쉬웠던 자리였다.

한편 땅그랑반튼한인회 6기이어서 한인회의 활동을 동포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환으로 까치소리를 발행하고 있고 전문 분야별 동포자문위원을 구성해 한인동포를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박성대회장〉

있다 상담분야는 법률상담과 건강 상담으로 향후 더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 20주년을 목전에 둔 6기로써는 변화와 혁신, 성장을 넘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확장성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갈것이며 다가오는 20년사의 멋진 획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2025년 제 16회 땅그랑반튼한인회 골프대회 및 연말송년회를 마치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 희망 차고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나갈것으로 기대한다. [편집국]

제22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에 인도네시아 이정휴 대표

제22기 민주평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공식 출범했다.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에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이정휴 PT Geesan Indonesia(주) 대표, 간사에 정제의 PT.Winners consulting 감사가 임명됐고, 해외상임위원회로 오선희 위원이 위촉됐다.

제22기 민주평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 기수에는 국내외에서 총 22,824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며, 전기보다 3.8% 늘었다. 해외 자문 위원은 13개국 4,037명이며, 이 중 68.3%는 재외공관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청년 자문위원은 약 6천 명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무르, 부루나이 등 동남아 주요 지역을 포함하



▲이정휴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앞 줄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 [자료사진=민주평통]

는 협의회로, 재외동포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남아남부협의회에 따르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이정휴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제·동포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민주평통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층 참여를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국내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에서 제22기 국내 지역회의 출범대회를 개최한다.

시작으로 제주까지 총 18회 열리는 이번 출범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22기 활동 목표로 공유한다.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은 11월 3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흔들림 없는 평화통일 의지를 이어가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통일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향후 두 해 동안 국내외 위원들과 함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청년 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동남아남부평의회 출범식은 다음달 11일 자카르타 쉐라톤 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식〉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후 2시
장소: 쉐라톤 간다리아 시티 호텔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기술OK 신뢰OK 안전OK

SAMSUNG 삼성물산

OTIS

ThyssenKrupp Dongyang Elevator

MITSUBISHI ELECTRIC

Schindler

인니 인력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벌금 70억 루피아 부과



▲Lapor Menaker 홈페이지 화면 캡처(출처=lapormenaker.kemnaker.go.id)

인력부는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라는 새로운 민원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지적돼 총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20일 “지난 4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위반 사항으로

18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총 벌금은 70억 루피아를 넘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 중 반돈에서 한 국제 기업이 필수 외국인근로자활용 계획(RPTKA) 승인 없이 58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앙 및 지방 노동 검사관들은 이를 조사 후 공식 검사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적절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해당 회사는 5억 8,8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력부 신고 시스템은 11월 12일에 도입되어 20일 현재까지 8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노동 검사관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814건의 불만 사항이 확인됐다. 단일 불만 사항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잠재적 위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

은 여러 범주로 나뉘는데, 노동 관계와 관련된 불만이 441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 관련 민원은 427건으로 다음으로 많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2주 동안 전국 사업장의 노동 규범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 현황을 보여주는 초기 통계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위반 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사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상당수 접수됐다. 지난 6개월 동안 근로자의 사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28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미납 금액은 총 365억 9천 만 루피아에 달했다.

서부자바의 한 회사는 220명의 직원을 국가고용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중앙 및 지방 검사관들로 구성된 합동 노동 검사팀은 고용사회보장 국과 협력하여 해당 회사를 방문해 검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모든 근로자를 등록하고 미지급된 모든 기여금을 정산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장관은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 플랫폼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동 및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민원 플랫폼은 대중이 노동

함변의 법률상식

연말 점검 -

PT PMA의 법률 · 세무 정기 감사 체크리스트

한 해의 마무리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기업의 법률적 · 재무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해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국인 투자회사(PT PMA)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법적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연말 정기 감사 및 내부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연말에 확인해야 할 법률 · 세무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적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 법률적 의무사항 점검

① 사업허가 및 등록 간접
– OSS 시스템에서 사업 허가 유효기간 확인

– 추가 허가(환경허가, 보건허가 등)의 만료일과 갱신 여부 체크

② 정관 및 법인 문서 검토

– 정관(Anggaran Dasar)의 최신성 여부 확인

– 지분 변경, 이사 · 감사의 교체가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공증 및 신고 여부 점검

③ 계약서 일괄 재검토

– 주요 공급계약, 고객 계약, 임대차 계약 등 만료 여부와 자동 갱신 조항 검토

– NDA(비밀유지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서의 갱신 필요성 확인

④ 노동법 관련 문서 확인

– 취업규칙(Company Regulation)의 최신 개정 여부

– 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 KITAS(체류허가)의 갱신 여부

2. 세무 및 회계 관련 점검 항목

① 세무신고 및 납부 현황

– 법인세(PPH 25/29), 부가세 (PPN), 원천세(PPH 21/23/26)의 분기별 납부 내역 검토

– 전자세무보고(e-Filing) 시스템에 누락 없는지 확인

② 재무제표 및 회계 장부 정리

– 연말 결산을 위한 정확한 계정 정리

–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필요 여부 확인

③ 세금 감면 혜택 및 조세 인센티브

– 투자허가시 부여된 세금 혜택 유효기간 재확인

– 현지 고용 확대, R&D 투자 등에 따른 신규 감면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점검

① 준법감시 시스템 정비

– 내부감사보고서,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여부

– 부패방지, 윤리 규정, 내부 고발 시스템 운영 점검

② 정보보호 및 IT 보안 점검

– 데이터 보호 정책 및 보안 장비 점검

– 외부 침해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

③ ESG 및 CSR 활동 보고

– 2025년 진행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관련 활동 정리

– CSR 활동은 지역사회 및 정부 기관 보고용 문서로 정리 필요

4. 다음 해를 위한 법률 계획 수립

– 투자 계획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법률 리스크 사전검토

– 인허가 일정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 법률 자문 및 회계 파트너와의 연례 협의 일정 잡기 맷팅말



변호사 함상욱

연말 점검은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PT PMA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철저한 법률 · 세무 정비를 통해 다음 해를 더욱 견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조직 내 협업을 통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재,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 KEMEN-KUM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 PERKHAPPIN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플랫폼은 다양한 공개 신고 채널을 통합하여 더 빠르고 집중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

플랫폼이 11월 12일 출시되기 전에 진행했던 시험 단계에서만 도약 600건의 신고나 불만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임금과 사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인력부는 신고 사례들을 분류하여, 사례에 따라 담당할 기관 및 부서를 정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 Pos Bitung 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니 재무부, 탈세자 추징 통해 연말까지 세수 20조 루피아 확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현재까지 탈세자로부터 세금의 일부만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정부가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

은 지난 14일, 세무서가 납세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재무부가 목표로 한 총 50조 루피아~60조 루피아 중 8조 루피아만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세무부가 총액을 “천천히” 추징해 갈 것이며, 정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체납자들

에게 경고했다.

개인 및 기관 납세자로 구성된 약 200명의 위반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위반자들은 미납 세금을 선납하지 못해 분할 납부해야 했는데, 이러한 탈세자의 사례는 법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전에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비모 위자양또 세무국장은 “탈세자 중 일부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부채 구조조정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서가 연말까지 총 약 20조 루피아 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조 루피아는 10월 8일 기준 7조 루피아보다 약간 진전된 수치다. 탈세 단속은 올해 첫 9개 월 동안의 총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가운데 이루

어졌다.

9월 말 세금 징수액은 1,300조 루피아로 연간 전망치의 62%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5년 예산 법에 설정된 원래 수치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으며 연간 목표의 65%에 불과했다. 재무장관은 세무 당국이 법무부, 경찰, 금융거래보고분석 센터(PPATK), 부패척결위원회(KPK) 등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국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성장 촉진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는 20조 루피아의 정부 예금을 중앙은행에서 5개의 상업용 국영 은행으로 옮겼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국

가 예금은 이전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은 자금으로 인해 누적되었다. 이 예금의 재배치는 대출 지출을 가속화하고 민간 부문 활동을 활성화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언급했다. 소비세 징수액이 현저히 감소해 정부 소득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안녕하십니까,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 김수일 이사장입니다.

저희 BIC 산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BIC JAYA INDONESIA(BICJI)가 금번 인도네시아 노동부(DEPNAKER)로부터 “1.산업 환경 측정(Keselamatan & Kesehatan Kerja:K3), 2. 근로자 건강검진(MCU), 3. 사내 클리닉(In House Clinic) 운영 등” 산업환경 보건 부문의 검사 대행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활동을 개시하게 돼,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BIC는 198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에 의해 부산에서 부산인도네시아문화원(BICC)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한-인도네시아 간 문

화 교육 교류 증진에 기여했으며, 1990년대 초~2000년대 초 기간에는 부산, 경남 북, 울산, 제주를 관할하는 주부산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HCIB)으로 승격되며 비자 발급, 무역 및 투자 서류 공증 등 영사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다수의 봉제 신발 등 분야 기업들과는 귀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BIC는 부산에서는 “인도네시아정부 할랄청(BPJPH)으로부터 한국대표부 겸 할랄인증서 발급 대행기관(LHNL)”으로 지정

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산업환경 보건 부문 검사 대행기관(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K3 업무와 동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오랜 협력관계, 그리고 산업환경 보건(K3)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인 한국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덕분에 진출

후 단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노동부로부터 동종 업종 유일의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어서 NIKE, ADIDAS, NB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국공립 산업환경보건 기관들인 “노동부직할 작업환경보건원(BALAI BESAR K3)”, “자카르타시립 작업환경보건원(HIPERKES JKT)” 등과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PT.BIC Jaya Indonesia는 산업환경보건 부문 유일의 한국계 측정 검사 대행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

명감을 갖고, 고객사 생산현장의 안전과 위생,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생산성과 경쟁력, CSR 기업 이미지 제고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측정 검사를 위해서는 당사 기술사들의 현장 답사와 상담이 필요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T.BIC JAYA INDONESIA
WISMA STACO(Lt.6), Jl.Raya Kasablanka, Jkt
T:021-3049-0114. www.bicjayaindonesia.com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100세 인터뷰/ 김진희 메타본 대표] 은퇴 후 멈춘 삶, '시니어즈 AI 비서' 가 다시 일하게 돋겠다

AI가 2분 만에 내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시니어즈' 창업 일자리 플랫폼을 넘어 시니어의 삶 전반 케어하는 게 목표

"지금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막히는 건 두 가지예요. 정보의 과부하와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죠."

시니어 구직 플랫폼 '시니어즈(SENIORZ)'를 운영하는 김진희 메타본 대표는 "중장년층들이 일자리가 있어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창업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젊은 세대처럼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오가며 검색하고 필터링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이 하루 수만 건씩 쓸어지는 게시판식 공고 앞에서 좌절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는 것이다.

"은퇴 후 부모님이 달라졌다" … 가족에서 출발한 문제 의식

그의 마음을 움직인 배경에는 가까운 가족의 변화가 있었다. "제 어머니는 30년 교직 후 은퇴하셨는데, 그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점 무기력해지셨어요. 사회적 관계 상실과 무력감이 찾아온 거죠." 김 대표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시니어분들에게 다시 일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메타본은 2022년 1월 6일 창업했다. 처음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티켓팅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NFT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과감히 방향

을 틀었다. 같이 창업한 전중달 CTO는 네이버 공채 동기 출신으로, 각각 10년과 7년간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 온 경험이 있다. 창업 멤버 대부분이 1987~88년생으로 부모님 세대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에서

'시니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다음 과제가 되었다.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일을 의지가 있음에도 사회와 단절되어 가는 현실이 이들에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은퇴 연령대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만 약 71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하지만, 월평균 연금 60만 원의 현실과 OECD 국가 중 1위인 40%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농혹하다.

김 대표는 시니어 문제를 건강, 고독, 빈곤 세 가지로 요약하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화할 현실적 해법은 결국 일자리"라고 말했다. "일을 하면 활동성이 늘고, 사람을 만나며, 소득이 생기죠.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노령층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즈를 한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 단순한 구직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교육·여행·금융 등으로 확장하고 시니어들이 삶을 즐겁게 느

낄 수 있는 '종합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AI가 '시니어 비서'로…

"2분 안에 일자리 완성" 시니어즈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AI Agent)' 기술이 있다. 국내 25개 구직 플랫폼에서 매일 약 110만 건의 공고를 자동으로 수집해, 근무시간·업무강도·직무유형 등 시니어 친화 키워드로 분류한다. 사용자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앉아서 일하길 원하는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은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루는지 등)에 답하기만 하면 된다.

김 대표는 "답을 입력하는 동안 백엔드에서 후보군이 계속 줄어들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 3~4초 안에 결과가 됩니다. 평균 2분이면 지원까지 가능하죠." 라며 "AI가 시니어의 개인 맞춤형 구직 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니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UI·UX 설계 철학을 강조했다.

"40대 이후 절반 이상이 노안을 겪습니다. 젊은 세대와 같은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니어즈는 20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 명확한 색상 대비,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단순한 메뉴 구조를 채택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 간편가입으로 시작해, 지역·근무 형태·직무 순으로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시니어즈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자리는 요양·간병, 경비·건물관리 등 공공 일자리 중심이다. 이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사무직이나 상담직 등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소진돼 "일자리가 없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김 대표는 "충원된 포지션은 즉시 비가시화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즈가 다루는 데이터의 상당수는 공공기관의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민간 채용 정보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신뢰성과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 제휴를 맺은 뒤 확장할 계획이다.

시니어즈 정식 론칭 전 5개월간 진행된 베타 서비스에서는 약 6000 건의 구직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실제 채용 성률은 외부 기관의 통보 한계로 아직 집계되지 않



▲ 인터뷰 중인 김진희 메타본 대표.



는다.

김 대표는 "플랫폼이 커지면 채용처도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매칭률과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니어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수수료를 내고 급하게 필요한 인력을 찾는 '번개 일자리' 방식이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조건이 맞는 이용자에게만 카카오 알림을 보내 신속하게 매칭을 돋는다.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발송하는 스팸형 모델은

지양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달하는 초정밀 매칭 방식을

지향합니다"라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AI는 시니어의 동반자" …

기술로 일의 존엄을 되찾다

현재 메타본은 대표와 CTO, 기획·디자인, 개발 담당 등 4명으로 구성된 소수정예 팀이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대표를 포함한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확보했고, 엑셀러레이터 '베타그라운드'와 정부 지원금도 받았다.

김 대표는 "안정화를 3~4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며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유의미한 매출화 신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리는 AI의 역할은 분명하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기술이 좋은 AI입니다." 김 대표는 시니어즈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시니어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조력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메타본은 음성 기반 자기소개서 자동 작성 기능과 AI 증명사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후자는 이미 개발을 마쳤으며, "손가락보다 말로 구직하는 세상, 그게 시니어즈가 꿈꾸는 미래"라고 말했다.

결국 김진희 대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일을 통한 존엄의 회복'이다.

그는 "AI가 시니어의 삶에서 방대한 정보를 대신 읽고, 대신 걸어서 2분 안에 최적의 답을 건네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퀘스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부부 간의 호칭

요즘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연하남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중년의 여인은 남편을 '아빠(아이들의 아빠?)'

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호칭은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간에는 '여보', '당신' 같은 호칭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남에게 말할 때는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어도 안 됩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여자 쪽에서 남편을 말할 때는 높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거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거처칭)

숲사랑: 시댁에서 남편을 말할 때(사랑방에서 유래)

숲주인: 친구나 모르는 사람에게

소바같양반 :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소제댁 : 근친에게 아내를 말할 때

소아내, 안사람, 집사람 : 친구나 모르는 사람, 직장의 상사에게

소내자 : 점잖은 자리에서

소여보 : 부부 상호 간의 호칭

소당신 : 대화 중에 부부가 상대방을 지칭할 때

소0서방 : 친정 어른에게 남편을 말할 때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 외 50여권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코참 제7대 회장, 이강현 회장 연임 확정... 안정적 리더십으로 지속 성장 다짐



▲정견 발표하는 이강현 코참 회장. [코참 제공]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가 11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제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강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로 연임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승범수 수석부회장이 의장으로, 임종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송창근 명예회장과 김종현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와 회장 후보 정견발표, 주인 절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강현 회장은 “지난 6대 회장 임기 동안 정관 개정과 대기업 회원유치를 통해 코참의 조직적 기반을 다졌으며, 한국 공공기관을 특별회원으

로 초청해 기업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코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견 발표에서 “팀코리아(Team Korea) 정신을 계승해 정부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인사를 조정한 분기별 정기 간담회와 친선 라운딩, 차세대 간 네트워킹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및 아세안 국가 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협력 교류를 본격화하고, 매년 한국 학교와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한국어과에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참을 만들어 가겠

다”고 강조했다. 승범수 의장은 “오늘의 연임 결정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극복하기 위해 단합력으로 극복하려는 코참의 방법이며, 이 회장님이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혼신과 신뢰에 대한 회원사들의 공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코참은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과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 둔화와 인도네시아 내 투자 위축 상황 속에서, 코참이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를 연결하는 실질적 교량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참=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형 전자여권 단계적 발급 시작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자외선(UV) 아래에서 발광하는 다색(멀티컬러) 보이지 않는 형광 잉크를 적용한 신형 전자여권(e-passport) 발급을 시작했다. 이 기능은 인도네시아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율디 유스만 이민청 직무대행은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안 기능 강화는 여권의 안전성

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인도네

시아 여권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청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인도네시아 여권이 전 세계적

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제 신

분증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능을 통해

해외로 여행하는 인도네시아 국

민에게 더 높은 안전과 편의를



▲인도네시아 새 전자 여권 [사진=이민국]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율디는 신형 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국내와 해외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국민 누구에게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여권은 단순한 여행 신분증을 넘어, 디자인 요소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다. 각 페이지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 유산과 자연유산을 묘사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율디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된 보이지 않는 형광 잉크는 보안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문화적·자연적 풍요로움을 시각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그는 “강한 여권은 강한 국가를 반영한다”라며 “이번 혁신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여정에 더 높은 가치를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코파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코파의 힘은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코파의 힘은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 전문지로써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리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제작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1 (mr. kang) 0821 1122 8827

khong3000@gmail.com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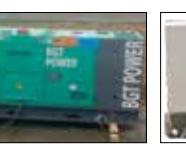


소 형 5kVA ~ 220kVA

중 형 250kVA ~ 700kVA

대 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제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성 용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국내 3대 마라톤 대회, 러닝화 1위는 ‘아디다스’ 동아, 춘천 등 12명 우승자 중 5명이 ‘아디다스’

대회마다 역대 최대 규모…러닝화 마케팅도 성황

(3대 마라톤 우승자가 신은 러닝화 브랜드)

서울마라톤 (동아마라톤) 11월 2일	춘천마라톤 10월 26일	JTBC 서울마라톤 11월 2일
우승자 보령도	우승자 보령도	우승자 보령도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03:42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22:29	리틀 닉 칫툰두, 씨-4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05:32
베셀레치 구데타 보레차(에티오피아) Finish time 2:25:36	정우환,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36:46	김예진,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26:12
김지호,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18:35	박현준,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34:56	로버트 웨드슨, 미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29:25
김예진은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52:09	최미경, 마한민국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58:23	미초코 이노, 일본 마크루 테클루 아세파(에티오피아) Finish time 2:40:16

▲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 ‘뉴발란스’ ‘SC 엘리트 V5’
[출처] 어페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어페럴뉴스 오경천 기자] 지난

2일 JTBC 서울마라톤을 끝으로
‘국내 3대 마라톤’ 동아(서울)
마라톤, 춘천마라톤, JTBC 서울
마라톤이 모두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는 러닝 열풍으로 일반
참가자(마스터즈)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동아(서울)마라톤 4만여 명,
춘천마라톤 2만여 명, JTBC 서
울마라톤 3만 4천 명 등 3개 대
회에만 총 10만여 명이 참여했
다.

특히 동아(서울)마라톤과 JTBC
서울마라톤은 온라인 접수 몇
십분 만에 마감되는 등 일반인
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각
대회 주최 측에 따르면 30대 비
중 증가, 여성 참가 비율 증가, 외
국인 참가 증가 등이 주목됐다.
동아(서울)마라톤에는 65개국에
서 3,766명의 외국인들이 참가
했다.

러닝에 대한 관심은 물론 깊이
있는 참여도가 이어지면서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러닝화의 쿠셔닝, 반발력 등
의 기능은 기록 단축으로 직결되

기 때문이다.

이에 아디다스, 뉴발란스, 나이
키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카
본화 개발 등 러닝화에 대한 기
술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
며,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스폰서
십을 통해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3대 마라톤 풀코스 대
회에서 어떤 브랜드의 러닝화가
우승했을까. 대회별 국내외 선수
들이 참여한 엘리트 부문과 일반
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부문
에서 남녀 1위 선수 총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이 ‘
아디다스’ 러닝화를 신고 뛴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동아)마라톤 마스터즈
여자부의 김예진은, 춘천마라톤
엘리트 여자부의 정다은 선수,
JTBC 서울마라톤 엘리트 여자부
의 임예진 선수가 아디다스의 ‘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를
신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서울(동아)마라톤 엘
리트 남자부 우승 하프투 테클
루 아세파(에티오피아)와 동 대
회 엘리트 여자부 우승 베셀레치

구데타 보레차(에티오피아)가 아
디다스의 러닝화를 신고 뛰었다.
아식스, 뉴발란스, 나이키를 신은
우승자는 각각 2명.

아식스는 춘천마라톤 마스터즈
남자부 박현준과 JTBC 서울마
라톤 마스터즈 여자부 미초코 이
노가, 나이키는 서울(동아)마라
톤 마스터즈 남자부의 김지호와
춘천마라톤 엘리트 남자부 전수
환 선수가 신고 뛰었다. 뉴발란
스는 춘천마라톤 마스터즈 여자
부의 최미경과 JTBC 서울마라톤
마스터즈 남자부 로버트 허드슨
이 ‘SC 엘리트 V5’를 신고 뛰

었다.

‘데상트’는 JTBC 서울마라톤
엘리트 남자부 리틀 닉 칫툰두
(케냐·20)가 깜짝 우승을 차지
하며 우승 러닝화에 처음으로 이
름을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
칫툰두는 대회 이전 2시간 17
분 47초가 자신의 최고 기록으
로 국제 대회도 처음 출전한다
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
던 선수다. 하지만 대회 당일 칫
툰두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12
분 15초나 단축한 2시간 5분 32
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업
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 국내에



▲[출처] 어페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서 열린 대회 중에서도 가장 빠
른 기록이다.

칫툰두가 착용한 신발은 ‘데상
트’의 최상위 레이싱화 ‘멜타
프로 EXP V3’로 데상트의 글
로벌 러닝 R&D센터 ‘DISC’
에서 엘리트 러너의 기록 단축
을 목표로 개발된 제품이다.

[출처] 어페럴뉴스

인니 루피아, 미국 정치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속 하락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3일 오전
한때 달러 대비 30포인트 하락
했다가 달러 대비 11포인트 하
락한 16,728루피아로 마감했다.
시장 심리는 미국 하원이 미국
에서 가장 긴 정부 셧다운 사태
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변화했다.
222대 209의 표결로 가결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서명할 예정이며 1월 30일
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
게 된다.

트레이즈 앤달란 퓨처스(Traze Andalan Futures)의 이브라힘

아수아이비 이사는 “정부 셧다

운 해소로 항공편 취소 등으로

위축됐던 미국의 연료 수요 불

확실성이 줄었다”며 “정부 운

영 재개로 공식 경제지표가 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폐

시 공개되면 세계 최대 연료 소
비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명확
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
다. 관련 데이터가 다시 나오면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
부의 엇갈린 의견도 루피아 약
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미국 통화
정책을 “너무 긴축적”이라고
표현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

랜타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불안도 부담을 더했
다. 나토(NATO) 회원국들이 러
시아와의 잠재적인 직접적 충돌
에 대비해 무기 공급을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2026년 국
가예산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GDP)의 2.68%로 설정
한 후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이
는 2026년 안전 범위로 제시된
2.45~2.53%를 상회하는 수준
이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ISO 9001 획득
NEP 획득
INNOBIZ
CE
RAM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M&I
TEL : +82-2-465-6308 / 3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 +62-21-8926-1370 이길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사게 될걸? 뱀 스킨 트렌드에 우아하게 올라탄 아디다스 삼바



▲Photo: Adidas; Collage: GQ

Adidas의 2025년 겨울 컬렉션 일부로 공개된 이 스니커즈. 다음 스니커즈 트렌드인 애니멀 프린트에 적중했다. 아디다스 삼바의 유행이 극에 달하면서, 요즘 그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디다스가 이를 눈치 챘을까? 아디다스 삼바 OG '마룬'은 팬들을 다시 끌어모을지도 모른다. 지난 몇 달 동안 스니커 신은 크고 과감한 컬러 조합이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된 느낌을 주며 그 자체로 훌륭한 팔레트 클렌저 역할을 한다.

시끌벅적한 '옐로우'를 선보이고 몇 주 뒤, 이번엔 '마룬'이 아디다스의 2025 겨울 아이템의 일환으로 공개되었다. 대부분의 삼바와 마찬가지로 레더 베이스 위에 토박스 전체를 스웨이드로 덧댄 디자인이다. 하지만 매끈한 질감을 고수하는 대신(너무 뻔하니까), 이번에는 페이크 스네이크스킨 텍스처를 적용했으며 실제로 꽤 고급스러워 보인다.

'크림 화이트' 쓰리 스트라



▲Adidas Samba OG 'Maroon'

이프가 사이드월에 자리하고, 번쩍이는 금색 삼바 브랜딩이 측면 패널에 찍혀 있다. 텅 탑에는 아디다스의 트레포일 로고가 나타나며, 신발은 1949년부터 이 실루엣에 적용되어 온 겜러버 솔 위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마룬'은 최근 뱀처럼 변신한 스니커는 아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 역시 이름 그대로 아주 적절한 '크록 스네이크스킨' 컬렉션으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스우시 팀에서도 컬트 클래식인 나이키 토탈 90 III가 최근 비늘 패턴 메이크오버를 받았다. 이번 스니커즈는 향후 몇 주 안에 출시 예정이다.

[GQ]

나이키 x 비브람 에어 포스 1 로우 출시 정보 미끄러질 걱정없다.

나이키가 비브람과 협업한 '에어 포스 1 로우'를 출시한다. 컬러는 '오프 느와 & 블랙'과 '클레이 그린' 두 가지로, 나이키 에어 포스 1 로우를 기반으로, 어퍼 전체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적용해 겨울철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가지고 있다.

또한 트레일 슈즈와 같이 비브람 러그 아웃솔을 적용해 눈, 비 등 악천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하며, 해당 스니커는 오는 12월 5일 글로벌 SNKRS에서 구매 가능하다.

[HYPEBEAST]

니고 x 나이키 에어 포스 3 로우 '킨츠기 팩' 출시 정보 니고의 첫 도자 전시가 열린다.



니고와 협업한 나이키 에어 포스 3 '킨츠기' 팩의 출시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해당

도자 전시 소식까지 함께 밝혀져 팬들의 화제를 모았다. 니고의 첫 번째 도자 전시 <NIKO and Handeishi>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월 12일까지 일본 세키시 미술관에서 개최되며, 해당 전시에서는 그가 새롭게 제작한 도자부터 세련된 미학과 소박한 소재로 일본 도예를 정의한 故 한데이시 카와키타의 작품

까지 만나볼 수 있다. 끝으로, 니고 x 나이키 에어 포스 3 '킨츠기' 팩은 11월 15일, 휴먼메이드 재팬 공식 웹사이트 및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서 선발매되며, 이후 11월 20일에는 SNKRS 및 일부 리테일러를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다.

[HYPEBEAST]

JJJ자운드 x 뉴발란스 990v4 퍼스트룩 필승 컬러 '머시룸'

JJJ자운드가 새로운 뉴발란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협업은 JJJ자운드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소개됐으며, 뉴발란스 990v4 'Made in USA'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JJJ자운드가 990v4를 선보이는 것은 2021년 출시된 '네이비' 버전 이후 두 번째다.

새 협업 스니커는 뉴발란스 협업 라인에서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머시룸' 컬러를 재해석한다. 이 색상은 앞서

993, 991v1 등에 적용된 바 있으며, 특히 2018년 첫 협업 모델이자 레어 아이템으로 꼽히는 990v3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번 스니커는 v3의 실버 툰 합성 텅 대신 메시팅을 적용하고, 'N' 로고도 한층 슬림하게 조정해 차별점을 뒀다.

정식 발매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2025 홀리데이 시즌 또는 2026년 봄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HYPEBEAST]



톰슨 목금형(톰슨발형) 아크릴 컷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 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컷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 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칼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아디다스, 스포츠와 컬처 파트너들과 함께한 윈터 라이프스타일 아우터 캠페인 전개 손흥민, 정호연, 박재범등 아디다스 파트너들과 함께한 윈터 캠페인 화보 · 영상 공개

파트너들 간의 유쾌한 케미와 함께 아디다스만의 다채로운 윈터 스타일링 선보여
오리지널스와 스포츠, 경계를 넘나드는 조화로움의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 캠페인 메시지 전달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오리지널스와 스포츠 퍼포먼스 전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윈터 라이프스타일 아우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 시즌 선보인 FW25 캠페인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FUN BEYOND RULES)’의 콘셉트를 겨울 아우터 스타일로 색다르게 풀어냈으며, 고정관념과 규칙에서 벗어나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디다스만의 윈터 스타일링을 강조했다.

공개된 화보와 영상에는 지난 시즌에 이어 아디다스의 컬처 및 스포츠 파트너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겨울 스타일을 선보였다. 글로벌 앰버서더 손흥민과 정호연을 비롯해 박재범, 베이비몬스터,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레슬링 선수 장은실 등이 참여하며 서로 다른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낯선 조합’의 재미를 담아냈다. 이들이 착용한 제품은 지난 10월 24일 성수에 오픈한 아디다스 ‘카페 3 STRIPES 서울’에서 진행한 ‘THE FUN BEYOND RULES CROSSING’ 패션쇼를 통해 선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오는 아디다스 파트너들 간의 유쾌한 케미가 한층 돋보인다. 손흥민과 박재범의 장난기 넘치는 호흡, 베이비몬스터와 오상욱의 낯설지만 귀여운 케미, 손흥민과 장은실의 월드클래스 피지컬 조합, 그리고 눈밭 위 런웨이를 수미상관으로 완성하는 정호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영상에 활기를 더했다. 여기에 아디다스 파트너들



▲아디다스, 윈터 라이프스타일 아우터 캠페인 화보

이 제안하는 컬러풀한 겨울 아우터 웨어가 어우러져 아디다스와 함께하는 윈터 스타일링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디다스는 이번 캠페인은 서로 다른 장르와 스타일이 만나 만들어내는 낯선 조합에서 오는 겨울 스타

일링의 재미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올겨울 많은 분들이 아디다스와 함께 자신만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내며 따뜻하고 재미있는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디다스는 윈터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18일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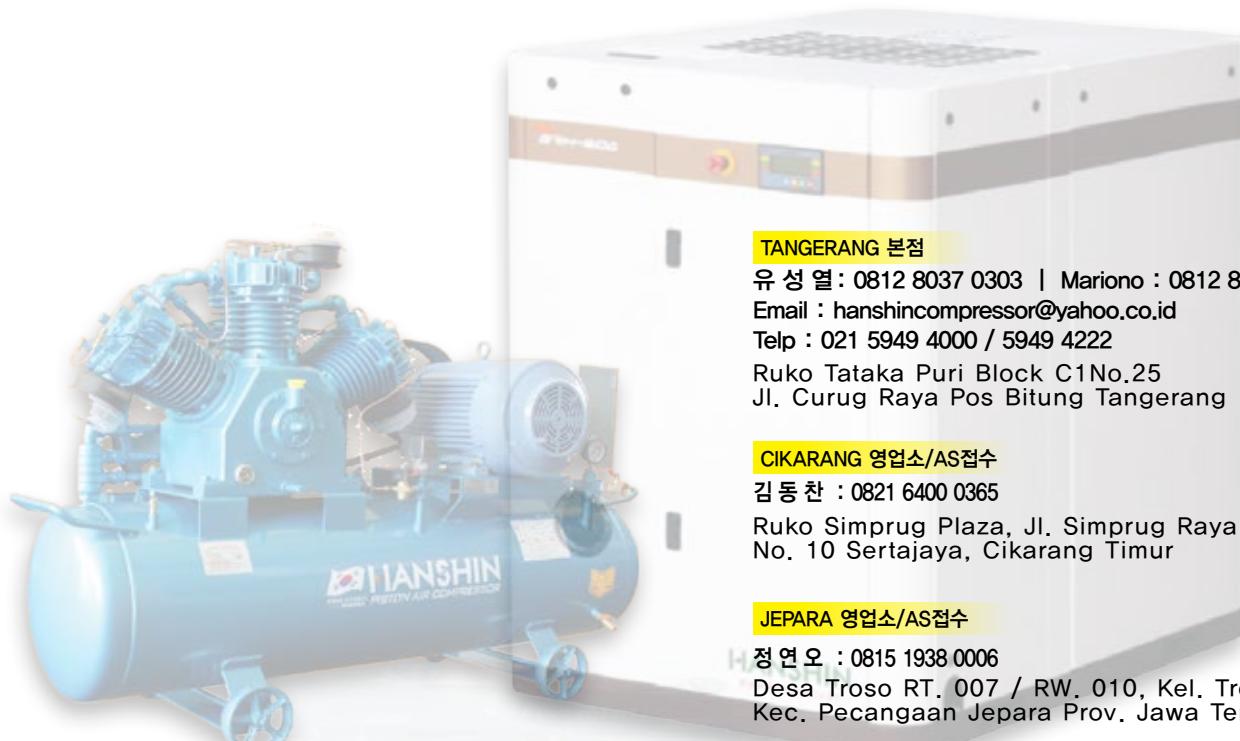
‘카페 3 STRIPES 서울’을 겨울 분위기로 리뉴얼할 예정이다. 겨울 한정 스페셜 메뉴와 함께 레이디브라운, 신종민, 쿨레인, AXOO corp. 등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전시 작품도 윈터 시즌에 맞춰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더불어 아디다스의 시그니처 베이커리 및 음료를 먹고 스텁프를 획득한 소비자 대상으로 3 FREQUENCY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하며, 아디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위켄드 뮤직 라이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전국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및 스포츠 퍼포먼스 매장과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모바일 앱에서 만나 볼 수 있다.

[NEWS WIRE]

HANSHIN

에어 콤프레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a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I.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점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점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